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문 전 대통령, 전주독서대전 깜짝 방문

전주매일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음 7월 17일) 제38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새만금 국비 1조455억원

개발 지체 우려 새만금 개발사업 '본궤도' 올라
12개 핵심 사업 통해 6년간 7조3614억 집중 투자

그동안 개발 지체 우려를 겪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사업 31건, 총 1조455억원이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당초 각 부처가 편성했던 예산액(7,429억원)보다 무려 3,026억원이나 증액된 규모로, 전년도 99.4%였던 정부 예산안 반영률이 140.7%로 크게 상승하며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그리고 시군이 예산 편성 초기부터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없이 방문하며 예산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로 평가된다.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 전북자치도·시군 등'의 전략적인 '원팀' 구축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 확보로 그간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 달성에도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31개 사업 중 주요 성과를 보인 7개 계속사업에는 총사업비 5조5,282억원 중 6,351억원이 확보됐으며, 새롭게 반영된 5개 신규사업에도 총사업비 1조8,332억원 중 134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새만금호 방조제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기본구상 용역비(5억원) △김제 용지 정착 농원 잔여 축사 매입(85억원) △새만금 신항만 관공선 건조(37억원)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 등 모니터링(4억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비(3억원) 등이 포함돼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과 2026년 신항만 개항 준비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

오랫동안 지연됐던 주요 개발 사업들도 다시금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 용지 조성을 위한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사업(1,760억원)과 함께 △새만금 수목원(871억원),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35억원) 등이 반영되어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기반인 교통 인프라(SOC) 사업은 요구액 전액이 포함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SOC 사업으로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1,200억원)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사업(705억원) △새만금 인입 철도(150억원) 등으로, 오랜 숙원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반영된 12개 핵심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6년간 총 7조3,614억원이 새만금에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새만금이 첨단산업과 친환경 인프라가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로 변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하반기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와 국정과제인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및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새만금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

무주반딧불축제 개막
바가지요금 등 없는
3無 축제 본분 강조
축제는 14일까지 진행

지난 6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식 반디 퍼레이드. 〈사진=무주군청 제공〉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식이 지난 6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30분 무주군태권도시범단과 중국 등봉시 소림무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반디 입장식'과 개막행사, 그리고 낙화놀이와 음악분수, 레이저쇼, 불꽃놀이가 어우러진 '반디 빛의 향연'으로 이어져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에서 등나무운동장(개막식장)까지 이어진 '반디 입장식'에는 무주반딧불축제의 상징인 '또리와 아로', 무주군민으로 구성된 취타대를 선두로 6개 읍·면 주민들과 춤아리, 무주가족센터, 농악팀, 숟가락 난타팀 등 300여명이 함께 하며 축제를 즐겼다.

개막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정세균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전 국회의장), 안호영 국회의원,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장과 자매결연 자치단체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5 아시아친환경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며 "올해도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의 기본을 지키고 날마다 재미와 편의, 만족이 넘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주제공연 '나는 반디'가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나는 반디'는 별이 되고 싶었던 반딧불이가 빛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진 개막 축하공연에서는 가수 경서와 조째즈가 무대에 올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의 흥을 북돋웠다.

남대천에서는 별빛다리를 배경으로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음악분수를 비롯해 낙화놀이, 레이저쇼, 불꽃놀이로 이어지는 '반디 빛의 향연'이 펼쳐지며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한편, 개막식에 앞서 펼쳐진 산의실 솟대 세우기를 비롯해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생태탐험, 남대천 생명플러스(치어방류, 소원 비행기 날리기)등도 호응을 얻었으며, 사랑의 다리 위에서는 물벼락 페스티벌이 펼쳐져 한낮의 더위를 씻어냈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을 주제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 문화삼성아파트 및 문화동 상가를 찾아 호우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나선 가운데,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전북에 '물폭탄' … 최대 290mm

상가 침수 등 피해 잇따라
도·시군, 응급복구 등 총력

지난 주말 도내에 최대 290㎜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오전 11시 10분 기준) 전북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4㎜, 익산 함라 256.0㎜, 완주 구이 213.5㎜, 김제 209.0㎜, 전주 완산 195.0㎜, 임실 신덕 173.5㎜, 진안 156.5㎜, 순창 복흥 133.5㎜, 정읍 태인 129.0㎜, 부안 새만금 93.0㎜, 장수 68.0㎜, 무주 설천봉 65.0㎜, 고창 상하 46.0㎜, 남원 12.5㎜ 등이다.

특히 군산의 경우 1시간 최대 강수량을 지난 2024년 7월 10일 1시간 동안 131.7㎜에서 이보다 20.5㎜가 더 많은 152.2㎜가 내려 1시간 최다 강수량 극값을 경신했다.

피해도 잇따랐다.

군산과 익산에서는 상가 116동이 물에 잠겼고,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등에서 주택 64곳이 침수됐다. 김제시 만경읍, 청하읍, 용지읍, 광활읍, 공덕읍 등 5개 읍면에서는 통신이 두절됐지만 현재는 복구됐다.

이번 비로 전북에서는 72가구 99명이 침수우려로 대피했다.

이에, 도와 시군은 피해복구작업에 나서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현재 피해복구작업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 등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 문화삼성아파트를 찾아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기계실 침수로 정전과 물공급이 중단된 아파트 주민들을 위로하고, 긴급 물공급 방안 등 이재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오전 10시께 진기마을(덕진구 진기길 47 일원)을 찾아 만경강 수위 상승으로 용소중학교로 대피 중인 현장 상황을 직접 지휘하고, 철저한 대응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과 이국·이보순 시의원 등도 진기마을과 용소중학교를 찾아 주민들의 피해상황 및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군산 지역 내 호우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복구 작업을 지휘했으며, 일시대피자(이재민) 발생에 대비 응급호구세트를 준비하고 일시 거주시설을 점검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현재 군산시는 비상근무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해 집계와 복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익산시도 호우경보 발령 한 시간 만에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700여 명의 직원을 읍면동에 급파해 하수구 정비와 긴급 복구에 투입했다. 정헌율 시장은 망성면 화산배수장 등 취약 현장을 돌며 "부서별 대응을 지체 없이 실행하라"고 지시했으며, 호우 특보가 해제된 뒤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풀지 않고 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날 새벽부터 재해 대응 공무원들과 함께 감곡면 유정리 논콩 재배지 침수 현장과 정읍천 홍수특보 지점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유호연 부시장 또한 칠보면 행단마을, 산외면 평사리, 산내면 종성리 등 산사태 취약지를 찾아 예찰활동을 실시하며 추가 피해 예방에 힘썼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